

신학사상

편집 기획과 발행에 관한 규정

□ 편집규정

제 1장 신학사상의 편집 기획 목적과 내용

1. 편집 기획의 목적

- 1) 국내의 교단과 교파들 그리고 신학대학들의 신학과 입장을 초월하는 에큐메니칼 신학 전문 학술지를 목표로 하며, 신학을 타학문, 타종교, 다른 사상들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마당의 역할을 한다.
- 2) 한국의 신학을 정초하고 세계에 한국 신학을 소개하며, 또한 세계 신학을 한국에 알리며 대화하는 일을 한다.
- 3) 신학을 상아탑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제를 연구하고 통일을 전망하는 실천적 신학운동이 되게 한다.

2. 주요 내용

- 1) 심포지엄: 특집으로 중요한 신학, 사회, 문화,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기획, 발굴하여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진단, 심화, 발전 및 대안을 연구한다.
- 2) 특집논문: 기획에 의해 주제를 설정하고 전문 학자에게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중요한 학문적 연구를 추진해 나가며, 또한 전문 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시킨다.
- 3) 성서연구: 기획된 주제에 따른 성서 연구를 병행하여 현실의 문제제기에서 성서를 연구하고, 성서의 연구에 비추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모색한다.
- 4) 해외논문: 해외의 우수한 논문 또는 기획 주제와 연관 있는 논문을 번역, 소개한다.
- 5) 연구논문: 세계 속에서 한국의 신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하며, 신진 학자들에게 학문적 검증의 기회를 제공한다.
- 6) 서 평: 국내외 주요 신학 도서를 소개하고 비평한다.

3. 특집논문과 성서 연구의 원고 청탁

- 1) 특집논문은 특집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그 분야의 전문 학자를 추천하여 원고를 청탁한다.
- 2) 성서연구는 특집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그 분야 전문 성서학자를 추천하여 원고를 청탁한다.

제 2장 발행에 관한 규정

신학사상은 1973년 8월 이래로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봄호는 3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가을호는 9월 15일, 겨울호는 12월 15일로 한다.

제 3장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하며, 대학의 교수나 해당 전공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 전공 분야, 지역, 교단, 교파, 신학대학들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의 할 일

- 1) 계간 『신학사상』의 편집 기획, 특집논문 필자 추천, 연구논문의 심사
- 2) 전공 분야 별 연구 및 출판 기획
- 3) 해외 우수 논문 또는 단행본의 추천

4. 편집위원의 선정과 임기

-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 2)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투고규정

제 4장 신학사상 논문 투고 규정

1. 원고의 분량

원고는 한글과컴퓨터사의 아래아한글로 A4 용지 기본설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40매(A4 용지 15-20쪽, 본문 글자 10point/바탕, 각주 9point /바탕, 줄간격 160%) 이내로 한다.

2. 논문의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 한글초록, 주제어(Key Word),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으로 한다.

1) 표제지

표제지에는 ① 한글 및 외국어 제목, ② 한글 및 외국어 저자 이름 ③ 소속기관, 직위, 전공분야, ④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적는다.

2) 초록

한글 초록과 외국어(영어, 독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 초록의 길이는 한글은 600자 이내(A4 용지 1/2면), 영문은 400단어 이내로 한다. 또한 각 초록 밑에는 한글과 외국어 주제어 (Key Word) 5개 이내를 반드시 기재한다.

3) 본문

① 한글전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는 괄호에 집어넣는다. 단, 한글 전용시 애매함과 번잡함이 예상되는 전문용어에 한해서 한자 또는 외국어의 직접 표기를 허용한다.

②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원어를 사용하되 음역할 수 있다.

③ 성서의 책명, 약자는 『개역개정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서의 장절 표시는 다음 예를 따른다.

예) 마 2:1-3; 막 4:1-5:5; 엡 3:1, 3, 5; 창 1:1

④ 본문의 항목 번호는 I, II, III → 1, 2, 3 → 1), 2), 3) → (1), (2), (3) 순으로 매긴다.

⑤ 외국어 인명·지명은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따른다.

• 본문이나 각주에서 외국어 저자 이름을 언급할 경우, 한국어 표기를 먼저 하고 그 뒤의 괄호 안에 원어로 그 이름(full name)을 표기한다. 그러나 맨 처음만 그렇게 표기하고 이후에 반복해서 그 이름을 쓸 때는 간단히 한글 표기만 한다.

예)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독일의 스타르제멜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9년 틸리히는 푸랑크푸르트 대학의 철학교수가 되었다.

• 그밖에 중요한 지명이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할 때도 위의 관례에 준한다.

• 본문 중에 저서를 언급할 경우, 그것이 번역된 저서라면 번역 제목과 함께 그 원어 제목을 함께 괄호 안에 명기해주고, 번역되지 않은 저서라면 임의로 번역하여 같은 방식으로 병기해 준다. 그러나 맨 처음만 그렇게 표기하고, 이후에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는 한글 저서 제목만 표기한다.

예)칼 바르트(Karl Barth)의『교회교의학,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Die Kirchliche Dogmatic: Die Lehre vom Wort Gottes*)는 본래 총 V부로 계획된,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실로 백과사전과 같은 신학총서이다.

⑥ 주석은 각주로 한다. ‘윗글’, ‘앞글’, ‘앞의 논문’, ‘앞의 글’, ‘상게서’, ‘전게서’, a.a.O., ebd.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고, Ibid., 118. 과 같이 영어식 표기로 통일한다. 쪽수 앞에 p., pp., 쪽, S. 등의 기호를 붙이지 않는다. 논문의 제목은 따옴표(“ ”)로 묶는다.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낫표「 」로 한다. 한글도서의 경우는 겹낫표『 』로 묶어 표기한다. 서양어 제목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한다.

⑦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 인용 방법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한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같은 쪽이면 Ibid., 다른 쪽이면 Ibid., 183 식으로 한다.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명, 논문이나 서명, 쪽수 식으로 한다. 예) 안병무, 『해방자 예수』, 183.

⑧ 편저 및 번역서 인용 방법

편저나 번역인 경우 저자 이름 옆에 그 사실을 편, 번역 등으로 표기하여 그 사실을 적시해준다.

예) 정승훈 편, 『아우슈비츠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53.

-번역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예) 데릭 티드블/ 김재성 옮김, 『신약성서 사회학 입문』(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18.

⑨ 정기간행물 표기법

신문 및 잡지 기사를 인용할 경우는 기사 작성자와 기사 타이틀, 신문/잡지 이름, 발행년월일 순서로 다음의 예에 따라 한다.

예) 정해영, “세계 50대 교회에 한국 23개”, 『조선일보』1993. 2. 8.

※ 주석의 예

1) 안병무, 『역사와 해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100.

2) Ibid., 101.

3) 김창락, “바울의 칭의론: 무엇이 문제인가?”, 김재성 편, 『바울 새로 보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30.

4) 안병무, 『역사와 해석』, 151.

5) 김창락, “바울의 칭의론: 무엇이 문제인가?”, 32.

6) Neil Elliott, *Liberating Paul: The Justice of God and Politics of the Apostle* (New York: Orbis Books, 1994), 100.

7) John H. Elliott, “Social-Scientific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Semeia* 35 (1986), 22-25.

8) Neil Elliott, *Liberating Paul*, 102.

4)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 목록에는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조한 문헌만 수록한다.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글문헌(저자명의 가나다순), 외국문헌(저자명의 알파벳순)의 순으로 한다.

② 외국인 성명은 각주와 달리 성(family name) 다음에 콤마를 하고 이름을 쓴다.

③ 각주와 달리 성명과 논문/책 제목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④ 출판도시와 출판사와 출판 연대를 묶었던 괄호도 풀어준다. 단, 논문의 출판 연대를 묶었던 괄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⑤ 번역서의 경우 책의 표지에 표기된 원저자 이름이 한글인지 외국어인지에 따라 국문자료 또는 외국어 자료로 배치한다.

⑥ 동 필자/저자에 의해 씌어진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씌어진 것부터 먼저 배치하고 그 아래 출간 연대순으로 나중에 씌어진 것을 배치한다.

예)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Elliott, Neil. *Liberating Paul: The Justice of God and Politics of the Apostle* (New York: Orbis Books, 1994).

아이건, 마이클/ 이재훈 옮김. 『감정이 중요해』.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1.

-----/ 이준호 옮김. 『무의식으로부터의 불꽃』.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⑦ 참고문헌이 길어서 2줄 이상 표기해야 할 경우 둘째 줄부터 1.5cm의 탭을 주어 들여쓰기로 처리한다.

3. 원고 모집 및 심사과정

1) 논문의 투고는 투고논문을 ktsi@chollian.net 이메일로 투고 제출한다. (단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본문, 각주에 포함된 논문은 추가로 논문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제출한다.

(보낼 곳) :

(0375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5 선교교육원내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편집실

2) 논문은 연중 항시 접수하며,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즉시 심사결과서를 투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필요시 수정한 최종원고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이메일로 최종 통보한다.

3) 『神學思想』은 각각 3, 6, 9, 12월 15일에 발행한다.

4) 투고자격: 박사이상 학위소지자이며, 『神學思想』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4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神學思想』을 우송한다.

5) 타 잡지나 단행본에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논문은 본지에 실을 수 없다.

4. 논문 게재료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연구논문의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 400,000원

2) 기타 학술기관 또는 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400,000원

3) 일반 논문 : 200,000원

4) 투고원고 분량 20쪽(표제지 제외)을 초과한 논문은 처음 5쪽은 10만원, 다음 5쪽은 20만원 그리고 그 이상은 40만원을 게재료 이외에 추가 청구한다.

5. 저작권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신학연구소가 소유한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 심사규정

제 5장 신학사상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신학연구소의 발행지인 『신학사상』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형식 검사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신학사상 연구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형식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합격된 것을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형식 검사에서 탈락된 논문은 규정에 맞게 투고자에게 수정 요구한다.

3.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각부 부장과 협의하여 투고원고에 대해 2~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 원고를 송부한다.

② 투고 논문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나 기관에 속한 사람을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대상 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4.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1) 창의성

원고가 그 주제, 내용, 방법이 이미 발표된 내용이나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며,

학계나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2) 논리전개의 합리성 및 객관성

원고의 내용에 논리의 비약이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기존의 연구성과와 비교 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3) 활용성

원고의 연구 성과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가. 주제와 내용이 시기에 적절하며, 사회 현상, 특히 한국 교회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가.

4) 적합성

원고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편집기획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① 국내의 교단과 교파들 그리고 신학대학들의 신학과 입장을 초월하는 에큐메니칼 신학 전문 학술지를 목표로 하며, 신학을 타학문, 타종교, 다른 사상들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마당의 역할을 한다.

② 한국의 신학을 정초하고 세계에 한국 신학을 소개하며, 또한 세계 신학을 한국에 알리며 대화하는 일을 한다.

③ 신학을 상아탑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제를 연구하고 통일을 전망하는 실천적 신학운동이 되게 한다.

5. 심사판정

1) 투고논문의 심사판정은 심사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점은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투고원고의 게재판정이 날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①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이면 '게재가'로 판정하여 투고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게 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원고를 자체 검토 후에 게재한다.

② 심사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여 탈락 처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 받은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는 경우, '수정 후 재심' 의견을 낸 심사위원에게 회부하여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가' 판정이 나는 경우 다음 호부터 게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원고가 결정 이후에 위조, 변조, 표절, 조작, 동시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이미 출판된 경우라 할지라도 상기한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

6. 심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

- 1) 심사결과 통보나 수정 보완 제의는 <논문심사결과 통보표>에 작성하여 필자에게 통보한다.
-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판정 후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신학사상』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8. 심사료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탈락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9. 기타

- 1)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필자 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2) 선정된 연구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

□ 윤리규정

제 6장 신학사상 연구논문의 윤리에 관한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신학사상』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벌칙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윤리

논문 투고자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학문적 객관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을 금하며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

연구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조작, 동시 투고, 중복 게재, 게재불가 판정받은 논문의 재투고 등을 연구 부정행위로 명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을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을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논문의 표절행위이다. 또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출처 없이 제시하는 행위도 논문의 표절행위이다.
- 2)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시하지 않거나, 연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 3) 같은 논문을 반복하여 투고하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과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
- 4)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거나 심사중인 논문을 본지에 투고하는 이중투고 행위.
- 5)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

4.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혹은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논문을 한국신학연구소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2)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이 명백하게 연구논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 사실을 한국연구재단과 소속 학회에 통보하며 향후 2년간 본지에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5.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1) 신학사상에 투고된 논문 중 윤리규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한국신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4)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5)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징계의 내용을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며 이 사실을 개인이나 한국연구재단, 소속 학회 등의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

- 끝 -